논문접수일 : 2012.07.05 심사일 : 2012.07.12 게재확정일 : 2012.07.24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의복구성 분석

Construction by Types of Broadened Shoulder Design

박 주 희

SADI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Ju-Hee Park

Dept. of Fashion Design,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1. 서 론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2. 연구문제 및 방법

2. 어깨 확장 디자인의 고찰

2-1. 인체 과장과 어깨 확장
2-2.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어깨 확장

3.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분석

3-1. 사선적 어깨 확장
3-1-1. 지고(gigot) / 짧은 벨(bell) / 랜턴(lantern) 슬리브
3-1-2. 케이프(cape) / 오리가미(origami) 숄더
3-2. 수평적 어깨 확장
3-2-1. 크레센트(crescent) 숄더
3-2-2. 조형적 수평 숄더
3-3. 솟은 어깨
3-3-1. 파고다(pagoda) / 피크(peaked) 숄더
3-3-2. 조형적 솟은 숄더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인체 왜곡의 한 방법으로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구성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어깨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체 확장과 어깨 확장 디자인의 역사를 고찰하였으며, 현대 패션에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례를 고찰하고 디자인의 변형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는 실험적 디자인을 시도하는 디자이너들의 2009S/S에서 2012F/W까지의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어깨 확장 디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성과 제작방식을 분석하였는데 사례에서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은 확장의 유형에 따라, 어깨점을 지나 팔 아래로 점차 넓어지는 실루엣의 '사선적 어깨 확장', 넓은 어깨를 가장하는 '수평적 어깨 확장', 어깨점에서 위로 확장된 실루엣의 '솟은 어깨'로 분류되었다. 어깨의 사선적 확장은 지고(gigot), 짧은 벨(bell), 랜턴(lantern) 등 어깨부분을 과장시킨 소매, 어깨를 감싸는 형태의 평면적 소매의 케이프 숄더(cape shoulder)와 오리가미(origami) 패턴의 숄더에서 나타났으며, 어깨의 수평적 확장은 크레센트 숄더와 같이 어깨의 암홀라인과 소매산의 조작을 통한 구성으로 시도되는 경우, 소매산 조작과 더불어 지지대 혹은 조형적 디테일을 활용하여 어깨와 상완부분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 인체와 무관한 조형적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경우 등으로 고찰되었다. 어깨 확장 디자인에서 가장 인위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솟은 어깨로는 파고다(pagoda) 숄더나 피크(peaked) 숄더, 패드나 심지 혹은 옷의 조형적 디테일로 구성되는 조형적 숄더 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사선적 어깨 확장, 수평적 어깨 확장, 솟은 어깨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attern construction and production method of broadened shoulder which is attempted as a manner of exaggeration in fashion these days. The study researched the costume history regarding exaggeration of human body and broadened shoulder design. The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so as to analyse the types of broadened shoulder design in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Broadened shoulders in today's fashion are divided into the sloping broadened shoulder, the level broadened shoulder and the raised shoulder. The sloping broadened shoulder which is enlarged by diagonal through the shoulder point is embodied in gigot sleeve, short bell sleeve, lantern sleeve, cape shoulder and origami shoulder. The level broadened shoulder which is simulated broaden shoulder is embodied in crescent shoulder and formative fabrication. The raised shoulder which is enhanced upwards is embodied in pagoda shoulder, peaked shoulder and formative fabrication.

Keyword

sloping broadened shoulder, level broadened shoulder, raised shoulder

1. 서 론

1.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역사적으로 인간은 복식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적 몸을 실현해왔다. 시대에 따라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 각기 다른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복식의 형태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혹은 종교적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의복에서 단순한 디자인이 선호되는 20세기 이후의 현대사회에서도 특정 부위에 대한 강조는 디자인 변형의 한 방법으로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깨를 확장시키는 디자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발망의 어깨 확장 디자인에서 촉발되었으며, 여러 방법의 의복구성 변형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면서 확산된 것이다.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은 종종 1980년대의 파워 수트를 회고하게 하는데 여성의 사회활동, 권리와 위엄을 나타내는 동시에 허리나 엉덩이 같은 다른 부위를 작아보이게 하는 효과를 위해 채택되었던 당시의 어깨 디자인은 오늘날의 어깨 확장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즉 넓어진 어깨와 함께 팔이나 상의의 품이 함께 커졌던 1980년대와는 달리 다양한 구성방법과 제작방식을 연구하고 실험적 시도로 변형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유행하는 특정 스타일을 구성 및 제작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연구가 반복되는 현상의 새로운 의미파악에 좋은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이 판단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관심에서 촉발된 몸과 복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체의 확장이나 축소, 그리고 그에 따른 의복 변형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지만(김경은, 1997; 김영란, 2007; 성광숙, 이순홍, 2004; 임은혁, 2006), 이를 의복의 구성 및 제작방식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어깨의 과장과 관련한 연구는 소매의 변천(권수현, 강순제, 2010), 특정 소매의 패턴(이정순, 2011) 등의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졌을 뿐, 소매나 어깨부분의 의복구성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인체 왜곡의 한 방법으로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구성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어깨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패션의 실험적 시도를 새로운 구성과 제작방식의 측면에서 고찰한 이 연구는 패션 디자인과 그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1.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어깨 확장 디자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최근 패션에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을 고찰하고 이의 유형별 구성방식 및 제작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인체 확장의 한 방법으로서 어깨 확장 디자인을 의복 구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복식의 역사와 현대패션에서 신체왜곡을 다룬 전문서적과 연구논문, 어깨 및 소매 디자인의 변천 혹은 의복구성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컬렉션에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을 통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범위는 재단법의 발달로 인체를 인식한 입체적 복식의 서구복식 전통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14세기부터(김민자 외, 2010) 20세기 이후 최근까지의 여성복 패션으로 하였으며 특히, 최근 패션에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분석은 발망을 비롯한 다수 디자이너들의 어깨 확장 디자인이 패션계의 이슈로 다루어졌던 2009S/S에서(www.style.com) 2012F/W까지의 Ready to wear와 Haute couture 컬렉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사례의 수집은 패션컬렉션 정보사이트 firstviewkorea.com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수집을 위한 디자이너와 작품 선정은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된 20세기에 어깨 확장을 시도했던 디자이너 사례와 선행연구(김정미, 이정순, 2009), style.com 및 firstviewkorea.com에 연계된 스타일 기사, 디자이너별 컬렉션 리뷰를 참고하였다.[1] 수집된 사례는 의류학 전공박사 2인의 타당성 검증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50점의 작품을 사례연구에 사용하였다.

---

1) 이론적 고찰에서 20세기에 어깨 확장 디자인을 시도했던 디자이너(뮈글러, 알렉산더 맥퀸, 요지 야마모토)와 선행연구(발망, 줄리앙 맥도날드, 마크 제이콥스, 루이 비통, 알렉산더 왕), 스타일 기사(마틴 마르지엘라, 빅터 앤 롤프, 돌체 앤 가바나, 프로엔자 슐러, 3.1 필립 림, 준코 시마다, 가레스 퓨, 클로에, 발렌시아가)를 참고하여 선정한 디자이너, 그리고 디오르, 존 갈리아노, 비비안 웨스트우드, 샤넬, 칼 라거펠트, 장 폴 고티에, 디체 카약, 헥사 바이 구호, 이상봉, 콤 데 가르송, 이세이 미야케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의 해당 시즌 작품을 모두 고찰하였으며, 이 중 단순히 넓은 어깨의 빅 숄더가 아닌 과장이 두드러지는 어깨 확장 디자인 사례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어깨 확장 디자인의 고찰

2.1. 인체 과장과 어깨 확장

복식의 과장 현상은 인체가 차지하는 개별적 공간 내에서 양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이는 개성이 아닌 사회문화, 혹은 집단의 이상을 복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성광숙, 이순홍, 2004) 때로 극단적으로 전개되어 비정상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궁정생활이 중요한 귀족사회,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20세기 이전 복식에서 두드러졌다.

20세기 이전까지 복식의 인체 과장 현상은 호신, 의례, 위엄, 권위, 부, 관능 등의 내적 의미를 지니며 머리, 어깨,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나타났다. 이 때 인체의 과장은 부피와 길이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어, 어깨, 엉덩이에서는 부피의 확장이, 머리, 목, 다리에서는 길이의 확장이 시도되었다. 부피의 확장 사례로는 어깨를 강조하는 에폴렛(epaulette), 숄더 윙, 숄더패드, 풍성한 소매 등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파팅게일(farthingale), 빠니에(panier), 크리놀린(crinoline), 버슬(bustle) 등을 들 수 있으며, 길이의 확장으로는 머리를 확장하는 에넹(hennin), 목을 확장하는 러프(ruff), 다리를 확장하는 뿔렌느(poulaine), 쇼핀느(chopine), 트레인(train)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체 과장 디자인은 위에서 밝힌 여러 도구를 활용한 제작방법 외에도 새로이 개발된 재단법이나 착용자의 자세로도 실현되었다(성광숙, 이순홍, 2004; 임은혁, 2006).

어깨를 확장하는 디자인은 16세기경부터 나타났다. 넓은 어깨와 길고 가는 허리, 그리고 풍성한 힙을 강조한 르네상스 후기복식에서 어깨는 패드를 넣거나 슬래쉬 장식을 한 퍼프 슬리브(puff sleeve), 상완부분에 린넨뭉치나 솜 패드를 넣은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of-mutton sleeve) 혹은 어깨에서 길게 늘어뜨린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에 의해 강조되었다.[그림1][2] 이때 소매의 과대한 장식으로 인해 보디스와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에폴렛 장식을 하였는데, 이로써 어깨는 더욱 확장되었다. 어깨에서 넓게 퍼진 퍼프 슬리브는 17세기의 바로크까지 이어졌다. 이때 소매는 슬래쉬 장식, 골풀로 채운 쿠션으로 크게 부풀려졌으며, 여러 층으로 된 레이스 러플이 풍성함을 더했다. 17세기 중엽, 어깨선은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워진 벌룬 슬리브(ballon sleeve)와 짧고 풍성한 멜론 슬리브(melon sleeve)로 과장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소매의 퍼프가 점점 낮아져 소매의 윗부분은 팔에 붙고 팔꿈치에서 퍼프된 소매형태가 나타났으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커프스(cuffs), 러플(ruffle), 앙가장트(engageante)로 손목을 강조한 디테일은 18세기의 로코코 시대로 이어졌다(김민자 외, 2010; 김현순, 2000; Laver, 2002/2005).

Koda(2008)는 복식에서 어깨선 확장의 첫 번째 목적으로 목을 길어보이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무거운 인공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로브가운 어깨선의 구성과 이를 유지하려는 의지력, 그리고 육체적 훈련에 의해 이상적인 목선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초의 상대적으로 평편하고 좁은 어깨의 엠파이어 드레스는 1820년대가 되어 어깨를 벗어난 네크라인과 슬리브의 퍼프를 이용한 어깨 확장 드레스로 대치되었다. 이 시절 확장된 어깨는 목과 머리에 이르러 삼각형을 이루며 이상적 인체미를 실현하였다. 여성 어깨선의 과장은 19세기 여성이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인체변형의 도구, 코르셋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1830년대 낮고 넓게 확장된 어깨를 위해 사용된 어깨끈은 코르셋과 연결되어 착용되었으며, 넓은 어깨는 이제 목을 길어보이게 함과 동시에 가는 허리를 강조하며 다이아몬드 형태의 토르소를 이루었다. 어깨 확장을 위해 커다랗게 부풀려진 소매는 거위털로 채운 쿠션, 철사, 등나무 줄기 등의 다양한 지지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드레스에 봉제되거나 코르셋의 어깨끈에 연결되었다(김현순, 2000; Koda, 2008).

1890년대 초반에는 1830년대의 지고(gigot)나 레그 오브 머튼과 같이 볼륨이 큰 소매가 다시 나타났으며, 이는 20세기 초 에드워디안 시대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의 과장된 소매는 숄더 윙이나 쿠션 등으로 구현되었는데, 목을 길어보이게 하려는 19세기 초의 의도는 퇴색되어 어깨경사가 완만해지고 소매의 부피감이 팔의 윗부분으로 이동되었으며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에 집중하였다(Buxbaum, 1999/2009; Stevenson, 2011).[그림2][3]

2)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와 행잉 슬리브로 강조된 르네상스 시대의 어깨
그림출처: 김민자 외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p. 216.

3) 9세기 초의 낮고 넓은 지고 슬리브와 19세기 말의 볼륨이 큰 지고 슬리브
그림출처: Koda, H.(2008).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36.

[그림 1] 엘리자베스 1세

[그림 2] (左) 승마복 (1830) (右) 바이시클 자켓 (1893)

2.2.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어깨 확장

20세기 들어 처음 어깨 확장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1930년대 말경이었다. 평평하게 확장된 어깨라인이 스키아파렐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 혁신은 공격적으로 넓어진 남성복의 어깨 실루엣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어깨의 확장은 각이 진 숄더 패드를 활용하여 실현이 가능했다. 미학적 견지에서 넓은 어깨는 브이 실루엣을 창조하였으며, 엉덩이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낳았다.[그림3][4] 1차 대전 이전까지 여성의 매력이 둥근 힙라인과 두드러진 엉덩이였음을 상기하면, 1930년대 말의 어깨 확장은 1920년대 유행했던 직선적 힙라인과 납작한 엉덩이의 극한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말에서 1947년의 뉴룩 이 전까지 여성의 이상적 신체인 브이형태는 점점 과장되어갔다(Buxbaum, 1999/2009; Koda, 2008; Mendes & la Haye, 1999/2003).

여성복에 숄더 패드를 다시 적용한 것은 뉴룩 발표 후 30년이 지난 70년대 말이었다. 1979년에서 1990년대 초까지 테일러드 의복에 숄더 패드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조지 알마니, 도나 캐런을 비롯하여 모든 디자이너가 풋볼 선수 수준의 큰 숄더 패드를 적용, 파워 숄더의 시대를 열었다.[그림4][5] 광고에서 신문을 들고 있거나, 대통령 선서를 하는 여성의 '성공을 위한 의복'에 적용되었던 이 파워 숄더는 약 10년간 유지되었으며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난 타이트한 실루엣, 높아진 암홀선, 좁은 어깨와 함께 사라졌다(Buxbaum, 1999/2009; Carnegy, 2007).

[그림 3] 길버트 아드리안(45F/W)

[그림 4] 조지 알마니

일반적인 트렌드에서 과장된 어깨가 사라진 1990년대에도 티에르 뮈글러, 알렉산더 맥퀸, 요지 야마모토 등 실험적 디자이너들은 어깨 확장 디자인을 종종 시도하였다. 당시 점점 좁아져만 갔던 어깨너비에 이들이 취했던 확장 디자인은 상향 확장이었는데,[그림5][6] 이는 1970년대 말 피에르 가르뎅이 선보였던 '슈퍼맨 컬렉션'의 V-실루엣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그림6][7] 이때 시도되었던 파고다 숄더는 어깨와 소매산의 절개선으로 구현되었으며, 형태 유지를 위해 모양을 낸 패드, 패딩, 심지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5] (左) 알렉산더 맥퀸(97F/W) (右) 요지 야마모토(96F/W)

[그림 6] 피에르 가르뎅, 1979

패션 트렌드에서 어깨 확장 디자인은 2000년대 후반 다시 패션 변화의 요소로 돌아왔다. 1980년대 이후 혁신적 디자이너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도되던 이 의복 과장의 방법은 발망의 크리스토퍼 데카르넹을 비롯한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촉발되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확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깨 확장 디자인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4) 40년대의 넓고 각진 어깨
그림출처: Koda, H.(2008). *Op. cit*, p. 39.
5) 80년대의 파워 수트
그림출처: Buxbaum, G. (Eds.).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금기숙외 역 (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서울: 서울문화, p. 233.
6) 90년대의 파고다 숄더
그림출처: Koda, H.(2008). *Op. cit*, p. 45.
7) 70년대의 파고다 숄더
그림출처: Langle, E. (2005). pierre cardin: fifty years of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페이지 표기 없음.

시기	시대 이상	의복구성	제작방식	사례
16세기	넓은 어깨, 길고 가는 허리, 풍성한 힙	퍼프슬리브 /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 행잉 슬리브	- 슬래쉬, 에폴렛, 린넨뭉치, 솜 패딩 등을 활용하여 형태 유지	
17세기	넓은 어깨, 길고 가는 허리, 풍성한 힙	퍼프 슬리브, 여러 층의 레이스 러플	- 슬래쉬, 골풀로 채운 쿠션 등을 활용하여 형태 유지	
1820- 1930년대	긴 목 가는 허리	목-어깨-허리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는 패턴: 낮은 어깨, 지고 슬리브	- 거위털로 채운 쿠션, 철사, 등나무 줄기 등으로 만든 지지대 부착 또는 착용	
1890년대	가는 허리	어깨-허리(힙)가 역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패턴: 지고/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 숄더 윙, 쿠션 등을 활용하여 형태 유지	
1930년대말- 1940년대	넓은 어깨, 좁은 허리(힙)	어깨-허리가 브이 형태를 이루는 패턴: 평평하게 확장된 어깨	- 각이 진 숄더 패드 부착	
1970년대말- 1980년대	넓은 어깨, 좁은 허리(힙)	어깨-허리가 브이 형태를 이루는 패턴: 과장된 확장의 파워 숄더	- 큰 숄더 패드 부착 - 심지로 가슴부위를 단단하게 처리	
1990년대	좁은 어깨, 마른몸매	어깨-허리가 좁은 브이 형태를 이루는 패턴: 파고다 숄더 / 피크 슬리브	- 어깨와 소매산에 절개선 넣어 조형적 구성 - 패딩이나 심지로 형태 유지	

[표 1]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적 고찰

3. 최근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깨 확장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다양한 어깨 디자인을 채택하고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디자이너와 작품의 선정과정을 거쳐 수집된 어깨 디자인 중 단순히 넓은 어깨가 아닌 과장의 의도가 두드러진 어깨 확장 디자인 250점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어깨 디자인을 어깨 확장 디자인의 역사적 고찰과 선행연구(김정미, 이정순, 2009; 김현순, 2000; Koda, 2008; 주기은, 2009)[8]에 나타난 어깨 유형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한 결과 '사선적 어깨 확장', '수평적 어깨 확장', '솟은 어깨'의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어깨 확장의 형태에 따라 어깨점을 지나 팔 아래로 점차 넓어지는 실루엣의 '사선적 어깨 확장', 넓은 어깨를 가장하는 '수평적 어깨 확장', 어깨점에서 위로 확장된 실루엣의 '솟은 어깨' 로 분류된 유형별 어깨 디자인을 의복구성 및 제작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사례를 유형별 분포, 디자이너, 사례로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3.1. 사선적 어깨 확장

유형	갯수	디자이너	사례
사선적 어깨 확장	117 /250	비비안 웨스트우드, 클로에, 알렉산더 왕, 디오르, 랑방, 샤넬, 디체 카약, 콤데 가르송, 알렉산더 맥퀸, 이세이 미야케, 칼 라거펠트, 요지 야마모토, 헥사바이 구호, 프로엔자 숄러, 등	
수평적 어깨 확장	88 /250	발망, 루이 비통, 랑방, 발렌시아가, 마크 제이콥스, 마틴 마르지엘라, 알렉산더 맥퀸, 샤넬, 존 갈리아노, 장 폴 고티에, 빅터 앤 롤프,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레스 퓨, 3.1 필립 림, 등	
솟은 어깨	45 /250	발망, 뮈글러, 가레스 퓨, 알렉산더 왕, 준코 시마다, 디오르, 빅터 앤 롤프, 마틴 마르지엘라, 장 폴 고티에, 알렉산더 맥퀸, 이상봉, 돌체 앤 가바나, 줄리앙 맥도널드 등	

[표 2]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사례

8) 김정미, 이정순(2009)은 어깨각도에 변화를 준 디자인 / 어깨너비에 변화를 준 디자인으로, 김현순(2000)은 전체확장형 / 부분확장형 디자인으로, Koda(2008)는 지고소매 어깨 / 패드댄 어깨 / 파고다 어깨 / 노쉬(noshi, 오리가미의 일종) 어깨로, 주기은(2009)은 각진 어깨 / 둥근 어깨 / 넓고 드롭된 어깨로 분류하였다.

어깨의 사선적 확장은 어깨너비의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의 구성만으로도 어깨 확장을 가능케 하는 유형이다.

역사적으로 어깨의 사선적 확장은 넓은 네크라인 혹은 어깨 경사를 연장하며 목선을 따라 얼굴을 감싸는 하이 네크라인과 함께 나타나 목선이 길어 보이게 하는 인체 이상형의 실현이었다. 여기에는 지고 슬리브,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짧은 벨 슬리브, 랜턴 슬리브(lantern sleeve) 등 소매의 윗부분을 과장하는 디자인이 주로 활용되었다.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사선적 어깨 확장 디자인 또한 이러한 소매 구성이 다양하게 변형된 것으로서 주로 지고, 랜턴 등 어깨부분을 과장시킨 소매로 구현되고 있었으나 어깨를 감싸는 형태의 평면적 소매의 케이프 숄더(cape shoulder)와 오리가미(origami) 패턴의 숄더에서도 사선적 어깨 확장을 볼 수 있었다.

3-1-1. 지고(gigot) / 짧은 벨(bell) / 랜턴(lantern) 슬리브

최근의 어깨 확장 디자인에는 소매에 풍성한 퍼프를 주는 전통적 지고 슬리브가 가장 대표적인 구성방식으로 고찰되었다. 여기에는 19세기 말에 아우어글라스(hourglass) 실루엣을 위해 과장되었던 엄청난 분량의 퍼프를 적용한 슬리브에서 주름의 분량이나 위치, 그리고 방식에 변형을 준 슬리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공존한다. 소매산 아래 보디스의 앞뒷품과 접하는 암홀라인에 주름을 준 카울 슬리브(cowl sleeve)가 대표적인 변형의 형태이며, 암홀라인에 주름이나 개더를 주지 않고도 사선적 어깨 확장을 꾀하는 소매산 변형의 의복구성 또한 같은 실루엣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벨 슬리브 또한 다양한 변형을 이루며 과장된 어깨 디자인으로 활용된다. 어깨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매의 윗부분을 풍성하게 해야 하므로 짧은 길이의 벨 슬리브가 효과적이지만, 암홀부분에 분량을 더한 변형 디자인으로는 길이가 길어져도 어깨 확장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구성된 랜턴 슬리브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어깨 과장을 이루는 소매 구성방법이다. 개더나 주름 등 원단의 일정 분량이 소매의 형태를 이루는 지고 슬리브와는 달리, 소매의 암홀과 확대된 부분의 차이가 큰 랜턴 슬리브에는 단단한 원단을 사용하거나 혹은 원단을 단단하게 만드는 처리가 필요하다.[그림7][9)]

이로써 카울, 드레이프 등 암홀선의 주름분량이나 위치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지고/벨/랜턴 슬리브의 변형이 가능하며, 드롭 숄더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확장 디자인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 above (左)빅터 앤 롤프(09F/W) (右)존 갈리아노(09F/W) below (左)크리스천 라크르와(09S/S) (右)헥사 바이 구호(12F/W)

3-1-2. 케이프(cape) / 오리가미(origami) 숄더

어깨의 사선적 확장을 위한 또 다른 구성방법에는 어깨를 평면으로 감싸는 케이프형 소매와 오리가미 패턴이 응용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별도의 소매구성이 없이 평면적 옷으로 어깨를 두르는 방식의 케이프에는 인체 어깨의 경사와 뻣뻣한 옷감이 협조하여

9) above (左) 주름의 위치를 암홀의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카울로 사선적 확장을 시도한 지고 슬리브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8&City=CD001&Event=EV001&Designer=499&Cate=CC001
above (右) 소매산의 변형으로 암홀에 주름을 주지 않고 과장된 실루엣을 표현한 변형 지고 슬리브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8&City=CD001&Event=EV001&Designer=464&Cate=CC001
below (左) 어깨선에 플레어를 적용, 과장을 더한 벨 슬리브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7&City=CD001&Event=EV001&Designer=443&Cate=CC001
below (右) 과장된 빅 숄더와 변형 랜턴 슬리브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4&City=CD001&Event=EV001&Designer=3258&Cate=CC001

이루어내는 사선적 어깨 확장이 따른다.

오리가미 패턴은 비전통적 소재와 기술로 몸을 덮는 것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실루엣을 이루어내는 이세이 미야케를 비롯한 일본의 디자이너에 의해 패션에 시도되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의복내에 다아트 혹은 구성선을 적용하여 몸의 실제모습을 재현하는 서양의 전통적 입체구성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양문화의 깊이에 매료된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등에 의해 입체와 협조를 이룬 평면으로 확대되었다. 어깨의 사선적 확장에 기여하는 오리가미 숄더에는 입체구성의 보디스와 조화를 이루며 직선적 확장을 이룬 디자인을 포함한다. [그림8][10)]

인체의 경사와 움직임을 고려한 평면구성으로 제작되는 케이프는 암홀선의 위치를 달리하여 행잉 슬리브와 같이 큰 조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오리가미의 변형 또한 시각적 효과가 큰 어깨의 확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케이프 / 오리가미 숄더를 통한 디자인 변형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림 8] (左)알렉산더 맥퀸(09 S/S) (中)빅터 앤 롤프(11F/W) (右)알렉산더 맥퀸(10 S/S)

3.2. 수평적 어깨 확장

현대 패션에서 어깨의 수평적 확장은 보통 패드나 조형물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센트 숄더와 같이 어깨의 암홀라인과 소매산의 조작을 통한 구성으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완부분에 인체와 무관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소매산 조작법이나 조형물과도 같은 지지대 혹은 조형적 디테일을 활용한 각진 형태의 실루엣으로 어깨 확장을 이루어 수평으로 넓어보이게 하기도 한다.

3-2-1. 크레센트(crescent) 숄더

어깨의 수평적 확장은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1940년대의 밀리터리 경향, 그리고 1980년대에 나타났던 파워 수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 확장된 어깨는 큰 숄더 패드와 자켓 내에 남성복에 사용되는 두꺼운 심지를 비롯한 여러 부속물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따라서 넓어진 어깨와 함께 의복은 전반적으로 두께감과 공간감을 많이 가지며 빅 룩을 연출하였다.

최근 패션에 나타난 어깨의 수평적 확장은 과거와는 다른 룩을 연출한다. 1990년대부터 좁아진 어깨와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몸에 꼭 맞는 핏의 트렌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타이트한 맞음새를 유지하면서 어깨만 넓어 보이게 하는 여러 모양의 숄더 패드를 개발하고, 다양한 구성선의 변화를 시도하여 1990년대부터 이어온 스키니 룩과 어깨의 수평 확장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실루엣을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방식은 소매산 혹은 어깨선에 초승달 모양의 구성선을 적용하여 소매의 윗부분만 수평 확장을 이루는 크레센트 숄더이다. 이로써 소매에 구성선을 추가하면서 소매통을 아래로 갈수록 좁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동시대 패션의 실루엣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깨 확장을 이루게 된다.[그림9][11)]

어깨의 수평 확장이 다양한 실루엣, 다양한 소재로 시도되면서 이 크레센트 숄더의 구성법 또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데, 크레센트 라인 혹은 소매 구성선의 변형, 셋인/래글런/돌만 등 다양한 소매형태와 크레센트 숄더의 변형을 결합하면 새로운 디자인의 어깨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10) (左) 케이프형 행잉슬리브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7&City=CD001&Event=EV001&Designer=430&Cate=CC001
(中) 입체구성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에 평면구성의 오리가미 디테일을 적용한 확장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1&Designer=499&Cate=CC001
(右) 오리가미 기법의 소매로 부피감을 실현한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9&City=CD001&Event=EV001&Designer=430&Cate=CC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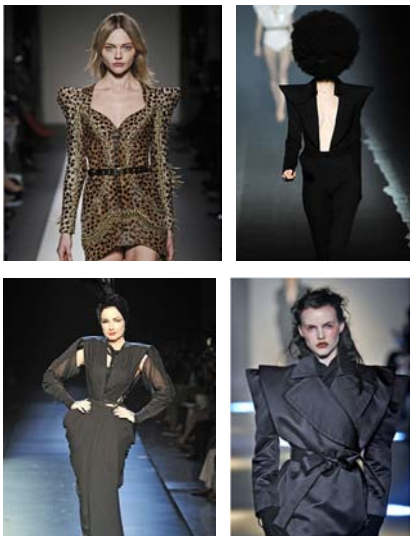
11) (左) 각지고 넓은 어깨와 타이트한 핏의 크레센트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7&City=CD001&Event=EV001&Designer=1004&Cate=CC001
(右) 소매 전체에 구성선을 넣은 변형 크레센트 숄더
그림출처:http://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lideshow/S2009RTW-LVUITTON/#slide=5

[그림 9] (左)발망(09S/S) (右)루이 비통(09S/S)

3-2-2. 조형적 수평 숄더

어깨 디자인이 인체의 실재를 떠나 전혀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를 본고에서는 조형적 숄더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 조형적 숄더에는 사선적 어깨 확장에서도 활용되었던 카울을 단단하게 구성하여 수평 확장을 이룬 방식, 풀 먹인 빳빳한 원단으로 조형적 디테일을 만들고 이로써 수평 확장을 이루는 방식, 어깨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옷으로 덮는 방식, 소매산을 연장하고 소매산의 중심에 절개를 주어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평면조작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그림10][12)]

인체의 실재와는 무관한 조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조형적 수평 숄더의 구성방식은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형태 및 소재의 조형물 적용, 오리가미 기법과의 결합도 재미있는 확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림 10] above (左)발망(10F/W) (右)마틴 마르지엘라(09S/S) below (左)장 폴 고티에 쿠튀르(10F/W) (右)비비안 웨스트우드(12F/W)

3.3. 솟은 어깨

어깨 확장 디자인에서 가장 인위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솟은 어깨는 슬리브나 몸의 구조와 협조하지 않는 구성으로서(Koda, 2008) 큰 지고 슬리브나 숄더 패드를 댄 디자인과는 다른 시각적 효과를 준다.

솟은 어깨는 위로 향한 커브가 탑의 지붕을 연상시킨다 하여 명명된 파고다 숄더(pagoda shoulder), 목에서 이어지는 어깨선이 연장되어 구성되지 않고 어깨 끝에서만 위로 솟은 피크 숄더, 패드나 심지 혹은 옷의 조형적 디테일로 구성되는 조형적 숄더 등으로 구현된다.

3-3-1. 파고다(pagoda) / 피크(peaked) 숄더

동양 탑의 전체 실루엣을 형상화한 파고다 슬리브가 소매의 아랫부분으로 종모양으로 넓힌 것과 달리 파고다 숄더는 보디스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어 낯선 형태를 이룬다. 패션에서 파고다 숄더 혹은 피크 숄더가 골계미를 지닌 디자인으로 자주 시도되는 이유이다. 앞서 살펴본 1970년대 피에르 가르뎅이 시도했던 파고다 숄더[그림6]는 미국 만화사, DC 혹은 마블 코믹스의 주인공에 대한 디자이너의 유머러스한 접근이었으며, 1990년대 맥퀸의 파고다 숄더[그림5]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이 들어 올리고 있는 듯한 회화프린트를 접목한 위트의 표현이었다.

최근 패션에 나타난 파고다 숄더와 피크 숄더 또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고 있다. 파고다 숄더나 피크 숄더의 구성방법으로는

12) above (左) 단단한 카울로 수평적 확장을 시도한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0&City=CD001&Event=EV001&Designer=1004&Cate=CC001
above (右) 조형적 재료를 활용한 수평 확장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7&City=CD001&Event=EV001&Designer=703&Cate=CC001
below (左) 조형적 지지대를 활용한 수평 확장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0&City=CD001&Event=EV003&Designer=229&Cate=CC001
below (右) 소매산의 중심에 절개를 주어 접힘 분량을 확보, 각진 조형으로 수평 확장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4&City=CD001&Event=EV001&Designer=500&Cate=CC001

디자인에 어울리는 모양의 패드를 적용하는 방법, 소매산을 연장하여 원판 형으로 솟은 슬리브를 구성하는 방법, 소매산과 어깨의 암홀라인을 분리시키는 방법 등이 파악되었다. [그림11][13]

파고다 및 피크 숄더는 보디스나 전체 슬리브의 모양과는 관계없는 구성으로서, 시각적 효과가 큰 디자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수평적 어깨 확장 디자인과의 결합 혹은 패턴의 평면적 조작 등으로 파고다 및 피크 숄더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림 11] (左)뮈글러(11F/W) (中)빅터 앤 롤프(11F/W) (右)마틴 마르지엘라(09S/S)

3-3-2. 조형적 솟은 숄더

조형적 조작으로 솟은 어깨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매패턴에 조형적 구성선을 적용하고 모양을 만든 조형물로 지지하는 방법, 소매의 내부 혹은 외부에 패드를 이용한 조형물을 붙이는 방법, 지지가 가능한 빳빳한 소재의 조형물을 소매구성에 활용하는 방법, 소매패턴의 평면적 조작으로 인위적 솟은 형태를 구현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그림12][14]

조형적 숄더로 구현하는 솟은 어깨는 파고다/피크 숄더와 마찬가지로 실제 팔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유머와 위트를 전하는 디자인이 일반적이므로 디자인 변형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 및 소재의 조형물 적용, 오리가미 기법과의 결합도 재미있는 솟은 어깨 디자인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림 12] above (左)이상봉(09F/W) (右)장 폴 고티에 쿠튀르(10F/W) below (左)뮈글러(11F/W) (右)돌체 앤 가바나(09S/S)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분석내용은 [표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인체 왜곡의 한 방법으로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구성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어깨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체 확장과 어깨 확장 디자인의 역사를 고찰하였으며, 현대 패션에서 어깨 확장 디자인의 사례를 탐구하였다. 또한

13) (左) 패드를 적용한 파고다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1&Designer=843&Cate=CC001
(中) 소매산의 연장으로 피크 라인을 만든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1&Designer=499&Cate=CC001
(右) 소매산과 어깨의 암홀 라인을 분리시킨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4&City=CD001&Event=EV001&Designer=1990&Cate=CC001

14) above (左) 소매산에 조형적 구성선을 적용하고 모양을 만든 조형물을 넣어 구현한 솟은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8&City=CD001&Event=EV001&Designer=473&Cate=CC001
above (右) 충전재를 넣은 조형물을 소매의 중심에 적용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0&City=CD001&Event=EV003&Designer=229&Cate=CC001
below (左) 빳빳한 재료로 조형적 디테일을 만들어 어깨에 적용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22&City=CD001&Event=EV001&Designer=843&Cate=CC001
below (右) 평면 구성을 통해 인위적 실루엣을 구현한 숄더
그림출처: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ImageViewPop.aspx?Season=SS017&City=CD002&Event=EV001&Designer=92&Cate=CC001

유형	의복구성	제작방식	디자인 변형의 가능성	사례
사선적 어깨 확장	소매 윗부분을 과장하는 패턴: 지고 슬리브, 짧은 벨 슬리브, 랜턴 슬리브	- 소매패턴의 조작으로 원단의 분량이 큰 소매를 유지 - 심지, 와이어, 패드 등 지지대를 활용하여 형태유지	- 카울, 드레이프 등 암홀선 주름 위치 및 분량 변화 - 드롭 숄더와 결합	
	평면구성 혹은 평면과 입체구성의 혼합: 케이프, 오리가미 숄더	- 인체의 경사와 움직임을 고려한 평면구성 - 입체구성 효과의 오리가미 기법: 핀턱, 플리츠 활용	- 케이프의 암홀선 위치 이동, 슬리브 변형 - 다양한 오리가미 연출	
수평적 어깨 확장	어깨만 확장하는 소매패턴: 크레센트 숄더	- 소매산 혹은 어깨선에 구성선을 적용하여 소매산 부분만 수평확장 - 맞춤 숄더 패드, 지지대 필요	- 크레센트 라인과 소매 구성선 변형 - 셋인, 래글런, 돌만 등 다양한 소매와 결합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패턴: 조형적 수평 숄더	- 패딩, 심지, 지지대 등 조형적 재료 활용 - 인체와 무관한 조형적 구성	- 다양한 조형물의 적용 - 오리가미 기법과 결합	
솟은 어깨	어깨 끝에서 위로 솟은 패턴: 파고다 숄더, 피크 숄더	- 숄더 패드, 패딩, 심지 - 소매산의 상향 연장 - 어깨암홀선과 분리된 소매산	- 수평적 확장 디자인과 결합 - 평면적 조작 및 오리가미 기법과 결합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패턴: 조형적 솟은 숄더	- 패딩, 심지, 지지대 등 조형적 재료 활용 - 인체와 무관한 조형적 구성	- 다양한 조형물의 적용 - 오리가미 기법과 결합	

[표 3] 어깨 확장 디자인의 유형별 분석

연구의 본론으로서 어깨 확장 디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의복구성과 제작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어깨 확장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다양한 어깨 디자인 중 250점을 채택하고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나타난 어깨 확장 디자인은 확장의 유형에 따라, 어깨 점을 지나 팔 아래로 점차 넓어지는 실루엣의 '사선적 어깨 확장', 넓은 어깨를 가장하는 '수평적 어깨 확장', 어깨 점에서 위로 확장된 실루엣의 '솟은 어깨'로 분류되었다.

어깨의 사선적 확장은 어깨너비의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의 구성만으로도 어깨 확장을 가능케 하는 유형이다. 최근 나타난 사선적 어깨 확장 디자인은 소매 구성이 다양하게 변형된 것으로서 지고, 짧은 벨, 랜턴 등 어깨부분을 과장시킨 소매, 어깨를 감싸는 형태의 평면적 소매의 케이프 숄더와 오리가미 패턴의 숄더 등이 고찰되었다.

어깨의 수평적 확장은 보통 패드나 조형물을 활용하여 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레센트 숄더와 같이 어깨의 암홀라인과 소매산의 조작을 통한 구성으로 시도되는 경우, 상완부분에 충분한 공간을 형성하는 소매산 조작법을 통한 경우, 지지대 혹은 조형적 디테일을 활용한 직면체 형태의 실루엣을 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시도되었다.

어깨 확장 디자인에서 가장 인위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솟은 어깨는 큰 지고 슬리브나 숄더 패드를 댄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슬리브나 몸의 구조와 협조하지 않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솟은 어깨는 위로 향한 커브가 탑의 지붕을 연상시킨다 하여 명명된 파고다 숄더, 목에서 이어지는 어깨선이 연장되어 구성되지 않고 어깨 끝에서만 위로 솟은 피크 숄더, 패드나 심지 혹은 옷의 조형적 디테일로 구성되는 조형적 솟은 숄더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의 실험적 시도를 새로운 구성과 제작방식의 측면에서 고찰한 이 연구는 패션 디자인과 그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수현, 강순제 (2010). False Sleeves의 유형분석과 복식사적 고찰. 『복식』, 60(1), 163-179
- 김경은 (1997). 「복식에 나타난 확대와 과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 김영란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103-122.

.- 김정미, 이정순 (2009). 파워 숄더 재킷의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125-134.
- 김현순 (2000). 소매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영국의 daydress를 중심으로. 『복식』, 50(7), 235-247.
- 이정순 (2011). 파워 숄더 재킷에 적용된 Crescent Shaped Sleeve의 패턴제도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1), 59-71.
-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숙, 이순홍 (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 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Ⅰ). 『복식』, 54(6) 증보판, 101-117.
- 주기은 (2009. 4). Show off your shoulder. Vogue girl, pp.138-141.
- Buxbaum, G. (Eds.).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금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서울: 서울문화.
- Carnegy, V. (2007).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NY: Chelsea House.
- Koda, H. (2008).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Langle, E. (2005). pierre cardin: fifty years of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 Laver, J. (2002).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정인희 역 (2005). 『서양 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아트.
- Mendes, V. & la Haye, A. (1999).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 Stevenson, NJ. (2011). the chronology of fashion: from empire dress to ethical design. London: A&C Black.
- 스타일닷컴 http://www.style.com
- 퍼스트뷰코리아 http://www.firstviewkorea.com